담화와 인지, 제18권 2호, 2011년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진행상 용법 비교연구

－코퍼스(Corpus)를 바탕으로－

이 문 우

(한양대학교)

Lee, Mun Woo. 2011. A corpus-based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English present progressive aspect. *Discourse and Cognition* 18:2, 73-88.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t usages of Korean and English present progressive aspect based upon corpus linguistics.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in the present study: First, how often does the present progressive aspect appear in each Korean and English corpus? Second, how are the distributions of five categories--(1) activity in progress, (2) extended present, (3) repetition, (4) express future, and (5) a change in progress--in each Korean and English corpus?, and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istributions of the five categories in each Korean and English corpus? To figure out these research questions, Sejong mal-mung-chi for Korean and BROWN Corpus for English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considerable differences existed between Korean and English present progressive aspect in terms of its quality as well as quantity. The number of tokens in English corpus was three times more than that in Korean corpu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categories of English corpus was (1)-(2)-(5)-(4)-(3) with a relatively small difference between categories (1) and (2), while that of Korean corpus was (2)-(1)-(5)-(4)-(3) with a prominent dominance of category (2).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have pedagogical implications on the practical teaching method for Korean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learn English present progressive aspect in more systematic way. **(Hanyang University)**

Key Words: Korean-English contrastive analysis, corpus linguistics, BROWN Corpus, Sejong mal-mung-chi, present progressive aspect

www.kci.go.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 외국어 학습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혜원 1999). 이것은 마치 심리학에서의 '초두 효과'와도 비슷해서 처음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기능을 연결하여 알게 되면, 그 이후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존재함을 주지시켜 주어도 그러한 다른 기능들을 학습하는 데에 처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처음 접하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처음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배울 때, 현재진행상은 'be동사+ing'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 -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형태와 의미를 1:1로 대응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의성 2002).

물론 모국어와 전혀 다른 외국어를 배우면서 향후 학습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만한 복잡한 사항들을 최대한 간소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교수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영어활용능력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진행상은 '-하고 있다'가 전부인 수준이 아니다.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완벽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에서 현재진행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부터 지금의 형태:의미=1:1 식의 교수방법 이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왜 '현재 -을 하고 있다'는 의미 이외의 현재진행상의 쓰임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첫째,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고 있-' 혹은 '-중-' 으로 대변되는 한국어 진행상의 다양한 쓰임에 관해서도 평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의 현재 진행상을 배울 때에도 주로 '진행의 의미'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에 대한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처음부터 다범주화 시켜서 교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들의 영어 현재진행상 학습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corpus)를 바탕으로 실제 영어와 한국어에서 현재진행상의 출현빈도와 기능을 범주화 시킨 후, 각 범주별 현재진행

www.kci.go.kr

상의 분포를 살펴본 뒤, 그것들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큰 틀은 한영 대조분석을 띄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코퍼스언어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현재진행상 습득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영어교육학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은 각각 얼마만큼 출현하는가?
2.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1) 진행 중인 활동/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 (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4) 미래 표현/ (5) 진행 중인 변화'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현재진행상의 용법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3.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위의 다섯 가지 용법의 분포 중 특징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진행상

상은 한 사태가 일정한 시역 항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김차균 1999). 일정한 시역이란 한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가리킨다. 시간적 변화양상이란 문제의 사태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가리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황의 완결 또는 미완결의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그 밖의 여러 양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상이 문법범주라는 것은 그것이 주로 문법형태로 표시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상이란 현재, 과거 또는 미래의 한 시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주로 사건)의 양상, 이를 테면, 완결상과 미완결상 등을 문법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김건옥(1994)은 그의 저서에서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방해(interruption)의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재진행상을 '방해가 없는 상황(without interruption)'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방해가 있을 경우(with interruption)' 그 진행은 중단이 되고 마는 상황을 표현하는 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재진행상의 상황이란 방해가 있을 때까지만 어떤 행위나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방해가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ing'상태가 중단되거나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방해란 '또 다

www.kci.go.kr

른 상황의 전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은 완결상과 대립되는 미완결상으로 내부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나타내는 것이다(서정수 1996). 완결상이 사태를 외부 관점에서 한 덩이로 바라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부적 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미완결상이다. 이러한 미완결상은 의미적 관점에서 볼 때 (1) 진행상 (2) 반복상 (3) 습관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행상은 주로 동작성 용언과 어울려 단일 동작이 그대로 계속되는 구조를 보인다. 반복상은 주로 동작성 용언과 어울려 단일 동작을 되풀이하는 구조를 드러내고 습관상은 동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완결상의 각 범주는 진행상 말고는 이렇다 할 문법 형태가 대응되지 않는다. 진행상에는 '-고 있'과 같은 문법 형태가 주로 쓰이지만 반복상, 습관상은 특정한 문법형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분할 때에는 주로 부사어나 문맥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

2.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현재진행상 습득에 관한 연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시제와 상을 습득하는 정도와 과정에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은 영어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영어의 현재진행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은미(1994)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시제와 상을 학습할 때 형태가 같더라도 기능에 따라 학습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은미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6가지(단순현재, 단순과거, 진행상, 완료상, 완료진행상, 예정상) 시제와 상 표현을 42개 세부 용법으로 나눈 후,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시제와 상 표현으로 고쳐 쓰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검사를 통해 각 용법별 학습 정도를 조사했다. 이 중 진행상은 크게 '기준 시점에서의 진행', '일시적 상황', '습관처럼 반복되는 동작, 상태' '사건의 배경', '미완료', '미래 대용', '공손한 표현' 등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진행상에서 '기준시점에서의 진행'을 제외한 다른 의미들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경(1995)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순현재, 현재진행, 현재완료, 현재완료진행, 단순과거, 과거진행, 과거완료, 과거완료진행 등 8가지 시제와 상의 인식능력과 사용능력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현재진행과 단순과거에 대한 인식능력은 높았지만 단순현재와 현재완료의 인식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용능력은 단순현재와 단순과거에서 가장 높았고 현재완료진행과 과거완료진행이 가장 낮았다. 이미영(2000)은 중,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빈칸 채우기 방식의 테스

www.kci.go.kr

트를 통해 과거, 미래, 현재진행, 과거진행, 현재완료, 과거완료 등 6가지 시제, 상의 사용능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래의 사용능력이 가장 높았고, 과거, 현재진행, 과거진행,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순서를 보였다. 다른 시제들과 비교해 볼 때 진행형, 특히 과거 진행형과 완료형의 사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의성(2002)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현재, 과거, 미래, 완료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3-9가지씩 총 27가지 세부용법으로 나눠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통해 각 용법별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했다. 이 중 진행 표현은 '제한적 지속', '감정적 색채', '상태 동사의 진행'의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눠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정답률이 9%에 불과해 24-39%의 이해도를 보인 다른 시간 표현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방실(2003)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상의 용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진행상 용법에 대한 인식률은 '현재 진행-미완료-과거진행-완료진행-일시적 습관-수동진행-신체적 감각동사와 쓰이는 진행상-to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진행상-한정된 기간 계속-습관처럼 반복-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진행상-정중한 표현-미래'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진행상의 기본 의미를 '미래'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어려워했다. 일선 학교 영어 담당교사들 중 상당 수 또한 학생들에게 진행상의 용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으며, 초,중,고 영어교과서 중 연구에서 제시한 진행상의 13가지 용법이 모두 반영돼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뿐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교실현장에서 영어의 현재진행상이 한국인 학습자에게 제대로 교수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로 빈칸 채워 넣기나 문법성 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 점은 '현상 제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방실(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진행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드물고, 이방실(2003)의 연구도 현재진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행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진행상 만을 다룬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모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상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알아보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왜"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국어와 영어의 현재진행상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리는 방식이 아닌 실제 언어 사용양상을 보여주는 코퍼스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www.kci.go.kr

3. 연구 방법 및 절차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의 실제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영어는 BROWN Corpus, 한국어는 세종말뭉치(색인 중 writte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Concordance program으로는 Monoconc 2.0과 세종 길잡이(색인)을 사용하였다. 현재진행상의 쓰임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영어교사 교육에 많이 사용되는 The Grammar Book에 제시된 영어의 현재진행상 일곱 가지 용법을 참고하였다. 책에 제시된 일곱 가지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진행 중인 활동(Activity in progress)
   He is attending a meeting now.
2. 확장된 현재(Extended present: action will end and therefore lacks the permanence of the simple present tense)
   I'm studying geology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3. 일시적 상황(A temporary situation)
   Phyllis is living with her parents.
4.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Repetition or iterating in a series of similar ongoing actions)
   Henry is kicking the soccer ball around the backyard.
5. 미래 표현(Express future: when event is planned: usually with a future-time adverbial)
   She's coming tomorrow.
6. 현재 습관에 대한 감정적 발언(Emotional comment on present habit: usually co-occurring with frequency adverbs *always* or *forever*)
   *He's **always** delivering in a clutch situation. (Approving)*
   *He's **forever** acting up at these affairs. (Disapproving)*
7. 진행 중인 변화(A change in progress)
   She's becoming more and more like her mother.

처음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일곱 가지 용법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코퍼스를 concordance program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한국어 코퍼스는 물론 영어 코퍼스에서도 '현재 습관에 대한 감정적 발언'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확장된 현재' 와 '일시적 상황'은 실제 코퍼스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법 모두 '일시적(Temporary)'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고 이 두 용법을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이 용법은 '확장된 현재(일

www.kci.go.kr

시적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현재진행상의 일곱 가지 용법은 다섯 가지로 축소되어 사용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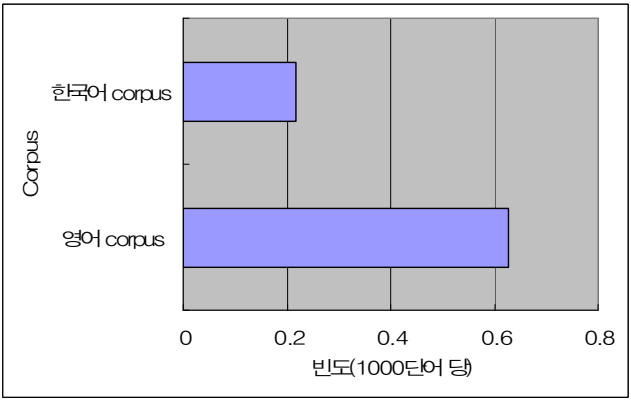
우선 영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am *ing/ is *ing/ are *ing/ 'm *ing/ 's *ing/ 're *ing 이렇게 여섯 가지 형태를 모두 고려하였다. 그 결과 총 627개가 추출되었다. 이것들은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1) 수동태, 2) 관용표현, 3) 명사나 현용사로 사용된 것들은 제외시키고 나온 결과이다.

1) At the moment, many of these are being pulled down.
2) Ms. Bardovi is willing to go to the hospital.
3) A mathematical formula is nothing more than a pattern for solving a specific problem.

1)과 관련하여 특별히 현재진행수동태를 배제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태(voice)등 다른 문법 을 제외한 순수한 현재 진행상만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코퍼스에서는 현재진행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 있*/ *중이다./ *중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코퍼스에서는 총 1,949개의 현재진행상이 추출되었다. '* 있었다' 등의 과거 진행형과 '비중, 오리무중' 등의 결과는 모두 제외하고 남은 결과이다. 그런데 영어 코퍼스는 약 1,000,000 단어이고, 한국어 코퍼스는 약 10,000,000 어절이기 때문에 두 코퍼스에서 각각 현재진행상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수치를 절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 코퍼스가 written 영역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코퍼스도 written 영역만 취하였다. 그러므로 천만 어절의 약 90%를 전체 코퍼스로 취하게 된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각각 1000단어 당 현재진행상이 얼마만큼 출현하는가를 계산해 보면 영어코퍼스 0.627개, 한국어 코퍼스 0.216개로 나타난다. 즉, 영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의 사용이 한국어 코퍼스에서의 그것보다 약 3배 정도 빈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www.kci.go.kr



<그림 1>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의 현재진행상 출현빈도

4.2.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용법의 분포

본격적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현재진행상의 기본 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진행 중인 활동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
(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4) 미래 표현
(5) 진행 중인 변화

이러한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진 기준에 맞추어 각각 영어 코퍼스와 한국어 코퍼스를 분류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현재진행상 용법의 분포

용법		1	2	3	4	5	전체
영어	개	259	210	8	59	91	627
코퍼스	%	41.3	33.5	1.2	9.4	14.6	100
한국어	개	487	1224	11	73	154	1949
코퍼스	%	24.9	62.8	0.6	3.8	7.4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는 현재진행상의 용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코퍼스 모두 '용법 3. 반복

www.kci.go.kr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이 가장 적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용법 4. 미래 표현', '용법 5. 진행 중인 변화'가 나란히 그 뒤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현재진행상 용법 3과 용법 4가 한국어에도 쓰이고 있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였다. 반면에, '용법 1. 진행 중인 활동'과 '용법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은 영어와 한국어의 순서가 뒤바뀌고 분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어의 현재진행상 용법 1은 41.3%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위를 차지한 용법 2와의 차이는 약 8%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어 현재진행상 용법의 분포에서는 용법 2가 62.8%로 과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2위인 용법 1과의 격차도 약 38%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4.3.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현재진행상 용법 비교

4.3.1. 영어 코퍼스에 나타난 현재진행상의 특징적인 사항들

영어의 현재진행상은 (1) 진행 중인 활동-(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5) 진행 중인 변화-(4) 미래 표현-(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순으로 용법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 절에서는 이 순서대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 진행 중인 활동'은 김은미(1994)와 이방실(2003)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영어 현재진행상 용법이다. 실제로 코퍼스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동사 자체에 '움직임'의 의미가 있을 때에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녔다.

(1) In the end, the good man, John Proctor, expresses what the audience has already come to feel when he says, 'A fire, a fire ***is burning***! I hear the boot of Lucifer, I see his filthy face!'

(2) On this point there was fairly general agreement that assessors would like to do more than they ***are doing*** now.

'용법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는 현재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현재형으로 표현될 경우 짚어낼 수 없는 '일시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용(1999)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는 다르게 think, hear등의 비의지적인 인식, 지각동사도 용법 2와 함께 발견되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6), (7)의 예문 참조).

www.kci.go.kr

(3) Georgia has made some reforms, true. The intrusive treatment program ***is working*** well. But in so many areas we still are dragging.

(4) Grover also would require junior-senior teacher to have at least 24 semester hours credit in the subject they ***are teaching***.

(5) They simply turned to God filled with gratitude and faith. We who ***are living*** today may learn a valuable lesson from those who celebrated the first Thanksgiving Day.

(6) President Walter J & Tuohy was summoned back for cross-examination by New York Central attorneys before examiner John Branford who ***is hearing*** the complex case.

(7) He declared the government ***is thinking*** of asking for foreign troops if the situation worsens.

세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인 '용법 5. 진행 중인 변화'는 주로 '추이'를 나타내는 특정동사와 많이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Become, grow, diminish, increase, decrease, expand, disappear등의 동사는 동사 자체에 무언가 변화를 겪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진행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용법 5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8) The potato chip industry these days ***is growing***, not only as a result of population increase and public acceptance of convenience foods, but also because of a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that has led to growth by merger.

(9) If this is true, then the universe today looks just as it did millions of years ago and as it will look millions years hence, even though the universe ***is expanding***.

'용법 4. 미래 표현'은 한국 학생들이 흔히 '왕래발착' 동사와 현재진행상이 함께 출현하면 해당되는 용법이라고 배운 것이지만 실제 영어 코퍼스 상에서는 go나 come등의 직접적인 왕래발착을 나타내는 동사들보다는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일을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

www.kci.go.kr

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10) In the small group will be the junior and senior Mrs. Walter Monroe; the bridegroom's parents, the Barrett Wendells, who ***are returning*** from winter holiday in Sarasota, for the occasion……(이하 생략)

(11) She's been in and out of my house for a dozen years now, although she's still a teen-ager who looks like a baby, she ***is getting*** married.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사 자체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용법 4. 미래 표현'의 범주에 넣어 분류하였다. 왜냐 하면, 아래의 예 (12)와 (13)과 같이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계획하고 혹은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가는지 그 진행 상태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용법 5. 진행 중인 변화'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끝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법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에 분류하자니 주로 일시적인 속성이 있는 동작 동사가 속해있는 용법 2에는 또한 정확히 성격을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용법 4. 미래 표현'에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12) Anyone who ***is expecting*** a joyride should, according to Me. Shriver, get off the train right now.

(13) The department ***is planning*** to expand its eradication program soon to four additional countries--Troup, Pierce, Bryan, and Bulloch--to treat 132,000 acres infested by the ants, according to W&E Blasingame state entomologist.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한 '용법 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 동작'은 repeat, rotate, orbit, spin 등 동사 자체에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에 현재진행상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의 효과가 배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4) Chuck a length of 1/8" dia& drill rod into a drill press or some similar turning device and while it ***is rotating*** file the end square and then file a slight taper 1/8" long.

www.kci.go.kr

(15) I keep all these plays in this little black book, and I watch a twelve-hour period to find out what numbers ***are repeating.***

4.3.2.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현재진행상의 특징적인 사항들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은 그 용법의 빈도가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1) 진행 중인 활동-(5) 진행 중인 변화-(4) 미래 표현-(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순으로 분포하였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이러한 분포의 순서대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용법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는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사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16) 이 박사는 충남 논산 백제 병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 의대 외래교수로 한의원 ***개업 중이다***.

(17)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가운데 올 6월 말 이전에 준공되는 발전소는 울산 제 2 복합화력 등 모두 9기로 발전용량은 2백 24만 KW에 불과하다.

(18) 참가자격은 대학(전문대 포함)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남녀이며 오는 6,7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2일 예선을 거쳐 12월 14일 호암아트홀에서 생방송으로 본선을 치른다.

한국어 현재진행상 용법 2에서 특이한 사항은 어떤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기술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작'을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용법 1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특히 뉴스나 기사문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19) 그런만큼 DJ(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황색바람이 재현될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최 씨는 미국인 친구가 '잘 지내라(Have a Good Time)'는 제목으로 보낸 전자우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지워버려야 했다. 이러한 피해자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www.kci.go.kr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인 '용법 1. 진행 중인 활동'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

사와 함께 쓰여서 생생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리고자 할 때 주로 등장하였다.

(21) 공화당 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관록의 정치인인 상원원내총무 밥 돌이나 다크호스격인 라마 알렉산더, 재력가인 스티브포브스 등에 비해 뷰캐넌 진영은 조직이나 선거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열세이다.

(22) 남한에서는 스텔스 B1B전폭기 등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미국 최신예 무기가 참가한 가운데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다***.

'용법 5. 진행 중인 변화'는 '성장하다. 확산하다. 전개하다. 확대하다. 줄어들다. 더해가다. 악화하다' 등 동사 자체에 변화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3)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새 정부는 토지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취해 토지이용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24)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은 화명정수장 취수원수도21일 2.35PPM에 이해 23일에는2.85PPM을 기록,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70년 초에 시작돼 지난 86년 도쿄에 오토바이용 자전거 전용코스를 개설한 일본에서는 85년부터 해마다 전국 선수권 대회가 열리며 지역마다 50-1백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째로 많은 사용분포를 보인 '용법 4. 미래 표현'은 본 연구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왕래발착동사처럼 특정동사가 미래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전후 문맥상 전혀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 expect, plan 등과 같이 동사자체에 아직 실현되지 못한 사실을 미래표현의 범주에 넣은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계획 중이다. 준비 중이다. 마련 중이다. 기대를 걸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희망하고 있다.' 등의 동사를 용법 4에 나란히 대응시켜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분류를 하니 생각보다 많은 한국어 문장들이 '용법 4. 미래 표현'에 속하게 되었다.

www.kci.go.kr

(26) 운동회 행사로 어수선했던 9월을 보내고 이제 10월에는 '학급잔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27) 또 몇몇 언론사들이 부처 별 취재제도를 전문영역별 취재제도로 전환하고 있거나 또는 하려고 ***준비 중이다***.

(28) 사와 씨는 지금 양국 간 새롭고 선린다운 관계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법 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또한 동사자체에 반복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거나 앞, 뒤 문맥상으로 반복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된 동사로는 '교섭중이다. 궤도를 돌고 있다. 잇따라 오고 있다. 맴돌고 있다. 격년으로 열고 있다.'등이 있었다.

(29) 투니버스는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과 ***협의 중이며*** 제 3의 공동투자자와도 접촉 중이다.

(30) 독일 푸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는 15일 북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망명과 총격사건 등 혼란에도 불구, 당장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기 했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현재 진행상은 각각 얼마만큼 출현하는가?
2.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1) 진행 중인 활동/ (2) 확장된 현재(일시적 속성)/ (3) 반복 및 비슷한 행동의 반복동작/ (4) 미래 표현/ (5) 진행 중인 변화'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현재진행상의 용법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3. 영어와 한국어 코퍼스에서 위의 다섯 가지 용법의 분포 중 특징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어 코퍼스에서 한국어코퍼스에서보다 약 3배 정도 빈번하게 현재진행상이 출현하였다. 이것으로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약 3배 정도 빈번하게 현재진행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www.kci.go.kr

현재진행상의 존재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빈번한 현재진행상 사용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출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빈번한 노출에 뒤따르는 다양한 용법의 문제를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습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현재진행상의 다섯 가지 용법이 보이는 분포는 상위 2개가 뒤바뀌어 서로 다른 분포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서 보듯이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의 다섯 가지 용법은 주로 '동사자체의 의미'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육적 시사점은 안겨준다. 김은미(1994)와 이방실(2003)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처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주로 '용법 1. 진행중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의 현재진행상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가끔 왕래발착동사 등 특이한 동사는 '용법 4. 미래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학습한 다음에는 현재진행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의 현재진행상은 한국어의 그것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진행상의 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영어습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외국어로 바로 대응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학습법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현재진행상 습득을 위해서 한국어: 영어의 현재진행상의 다 범주화된 대응 범주화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사실, 한국인 학습자들은 평소에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현재진행상에 대해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용법을 나누어 생각해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영어의 현재진행상 다섯 가지 용법을 제시하여 가르칠 경우 오히려 더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본 연구에서처럼 한국어:영어=多:多 대응 범주화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활용한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 범주 대응 범주화가 특별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동사자체의 의미'에 초점을 둔 분류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용법으로만 쓰이고 아닌 경우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 '형태중심의 학습'과는 다르게 학생 스스로 동사의 속성 및 내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따른 용법을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른 시제나 상의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영 대조분석이 단순한 현상제시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현상제시를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영어의 다양한 시제와 상의 용법에 대해 대조분석

www.kci.go.kr

과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김건옥. 1994. 우리말 논리로 이해하는 영어시제. 교문사.
김은미. 1994.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차균. 1999. 우리말의 시제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서정수. 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미영. 2000. 영어 시제의 이해와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방실. 2003.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진행상 용법에 대한 인식오류 원인 및 특성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경. 1995.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제와 상에 관한 인식 및 사용능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의성. 2002. 영어시제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글로벌 영어교육학회 7, 117-150.
이혜원. 1999.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제와 상 습득: 동사의 내재적 의미적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재성. 2000.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황병순. 2004. 한국어 문장문법. 한국문화사.
Biber, Douglas.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Celce-Murcia, Marianne and Diane Larsen-Freeman. 1983.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Rowley: Newbury House.
Sohn, Sung-Ock. 1995. Tense and aspect in Korean. Center for Korean Studies Monograph 18.

이문우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사범대학 (12동) 406-1호
전화번호: +82-2-2220-2607
E-mail: ppohi@hanyang.ac.kr

이 논문은 2011년 6월 29일 투고 완료되어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8월 3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

www.kci.go.kr